

### 제39회 충청중국포럼 개최

– ‘민간주도 한·중 지방문화교류 사례 및 시사점’

- 제39회 충청중국포럼이 지난 4월 24일 충남연구원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경남 고성 소재 ‘한국디카시연구소’의 이상옥 대표가 『민간주도 한·중 지방문화교류 사례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강의하고 도 및 시군 관계자들과 함께 토론을 진행했다.



<그림1> 제39회 충청중국포럼 사진

- 이상옥 대표는 ‘디카시’ 의미와 유래, 경남 고성과 디카시의 연계성, 문예운동으로서 지역발전에 가져다주는 의미 등에 대해서도 소개하였다.
  - 디카시는 디지털카메라와 ‘詩’의 줄임말이며,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문학 장르이고 영상과 문자를 하나의 텍스트로 결합한 멀티 언어예술이라고 하였다.
  - 그리고 ‘디카시’라는 용어는 2004년 4월 2일 처음으로 인터넷 한국문학도서관 ‘이상옥의 개인서재’ 연재코너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같은 해 ‘고성가도’라는 디카시 시집을 출간한 것이 고성을 디카시의 발원지로 만든데 가장 큰 공헌을 했으며 또 고성엔 이상옥대표의 고향이기도 하다고 하였다.
  - ‘디카시’를 통한 국제문화교류는 2016년이 원년인 셈인데, 그 이유는 2008년부터 개최해오던 ‘경남고성디카시페스티벌’이 2016년부터 국제디카시페스티벌로 개최되기 시작한 것이다. 또 작년에는 중국 정저우 현지에서 ‘제1회 중국대학생디카시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올해 초에는 청다오조선족작가협회와 MOU를 체결했는데 앞으로 한중 우호협력과 문화교류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하였다.
  - ‘디카시’를 통한 문예운동은 고성뿐만 아니라 인근 부산, 김해, 하동 등 지역에서 매년 활발히 진행해나가고 있다고 하면서, 단순 문예운동에서 시

작한 ‘디카시’가 이제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하였다.

- 강의를 끝난 후 종합토론이 있었다.
  - 충남연구원 박경철 박사는 현대인들이 사진을 많이 찍는데 이것을 문예운동으로 승화시킨 거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디카시’인 등단제도와 번역된 중국 참가자의 시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질문하였다. 이에 이상옥 대표는 등단제도는 아직 없지만 앞으로 ‘한국디카시인협회(가칭)’ 등 단체를 만들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평가는 국내 전문 시인들이 하는데 번역이 거칠다 해도 영상이 있어 평가하기 수월하다고 하였다.
  - 도와 시군 관계자들의 공모전이나 페스티벌 참여율에 대한 질문에 이상옥 대표는 SNS를 통한 홍보는 아주 효과적이라면서 최근에는 유튜브를 개설해 ‘디카시’ 활동을 전개하고자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 마지막으로 이상옥 대표는 ‘디카시’가 국제교류에서 가지는 장점을 시조는 정형적이고 리듬이 중요한데 ‘디카시’는 언어의 번역이 거칠어도 영상이 있고 영상속에 숨은 의미를 들춰내는 재미가 있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디카시’를 통한 행사가 지역에 가져다주는 가장 큰 장점은 현지에 와야만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작품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지역 관광자원의 홍보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하였다.

※ 본 포럼소식에서 사용한 중국 용어는 기본적으로 중국어 발음을 준용하여 표기하였으나 한자의 한국어 발음이 익숙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표기함

## 충청중국포럼 소식

문의 :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 (041-840-1175, [quanchfu@cni.re.kr](mailto:quanchfu@cni.re.kr))